

<영국에너지백서 2003>

청정 스마트형 에너지: 저탄소형 경제를 위한 정책

Our Energy Future: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에너지백서를 발표하여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고 향후 5-6년간 결정을 보류시켰는데, 이 기간 중 영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으로 계속 갈 경우 영국 정부가 단 1기의 원전으로 2025년 전력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2025년의 CO₂ 배출감축량은 예상배출총량 135Gt의 겨우 11-18% 수준이다. 에너지백서는 총에너지나 발전용연료의 에너지원별 쿼타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백서의 요약 부분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편집자주

1.1 영국은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에너지정책으로는 미래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 가스 및 석탄의 생산량 감소에 대한 슬픔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생산량 감소는 영국을 에너지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향후 20여년간 에너지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교체하거나 현대화 시켜야 한다.

1.2 이러한 도전과제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 즉 영국을 저탄소형 경제체제로 극적으로 전

환시키고, 첨단기술의 개발 응용 및 수출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영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조성하여 전세계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1.3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필수요소이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입수가능하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라야 현대화된 선진국들이 아주 복잡한 에너지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서 깨닫는다.

1.4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 정부는 2003년 2월 24일 국가에너지백서 “에너지의 미래 — 저탄소형 경제를 창조하자” (Our Energy Future –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를 발표했다.

도전과제

1.5 첫 번째 도전과제는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1990년대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 기후가 가장 따뜻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지구의 온도는 과거 10,000년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에서도 가뭄과 수해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 급세기말 영국 동부해안 일부지역에서는 해수면이 10~20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안정화 될 경우 기후변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훨씬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은 계속 지도적인 모습을 보이겠지만,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겨우 2% 수준이다. 집중적인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영국은 UNFCCC 체제 속에서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확실한 약속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목표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확고히 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이해를 높여야 한다. 영국은 지식토대를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1.6 영국은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60%를 감축시킬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0%를 감축시키는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의 에너지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영국의 신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환경 및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마련될 것이다.

1.7 영국은 2050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배출물 6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를 끝까지 방치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못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다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고비용의 대가를 치르는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조기에 잘 기획된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와 사업이 변화의 필요성에 적응하고 신기술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정부는 2050년까지 60%의 오염배출물 감축이 영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 분석자료를 보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비용은 2050년 GDP의 0.5~2% 정도로 매우 작으며, 현재 규모의 3배 정도가 된다.

1.9 두 번째 도전과제는 석유 가스 원자력 및 석탄 등 국내산 에너지공급의 감소이다. 영국의 경제성 있는 탄광 대부분이 1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2006년경에는 가스 순수입국, 2010년경에는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략할 것이다. 2020년경에는 1차에너지 수요의 3/4을 수입에너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1.10 영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략하면서 규제실패, 세계 정치의 불안정 또는 무력충돌에

의해서 야기되는 가격변동이나 공급중단 사태에 더욱 취약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수입국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중에서 현재 캐나다와 영국만이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영국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며, 과거 영국도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전에는 그랬었다. 에너지공급 신뢰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에너지의 다양성을 통해서 일 것이다. 영국은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선 및 공급루트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열병합발전(CHP) 및 연료전지 같은 분산형 에너지원이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안보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1.11 노르웨이는 향후 10년간 주요 가스 수입선이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중동, 북미 및 남미와 같은 다른 공급선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무역거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수반하게 되어 그들의 에너지는 영국에 중요하고 우리의 돈은 그들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 상호의존 심화는 신뢰가능한 에너지의 확보가 영국의 대유럽 정책 및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임을 의미한다. 세계의 석유 및 가스 대부분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영국은 지역안정, 경제개혁,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그리고 적절한 환경정책을 촉진시키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까지는 산업부문 소비자들에게, 2007년까지는 전부문에서 EU의 에너지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영국이 다양한 에너지공급원에 접근하고 영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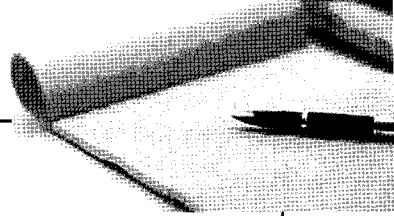
1.12 세 번째 도전과제는 향후 20년간 에너지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현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가스화력과 같은 발전설비에 상당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일부 발전설비는 유향상태로 되었으며, 신재생발전 이외의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화가 예상된다.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의 대응은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현대화시키거나 폐쇄시키게 될 것이다. 발전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현재 수준보다 감소되어 2025년에는 겨우 1기의 원전만이 가동될 것이다.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는 보다 중요한 발전원으로 될 것이다.

1.13 향후 상당한 투자가 에너지부문의 인프라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력공급망은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와 보다 소규모의 분산형발전도 수송할 수 있도록 적응해야 할 것이다. 파이프라인 형태이든 LNG 형태이든 가스 공급선도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압축천연가스나 수소같은 수송연료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료공급 인프라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신에너지정책의 목표

1.14 정부는 3개의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4개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세운다.

- 2050년까지 CO₂ 배출을 약 60% 감축하는 경로로 진입시켜 2020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 에너지공급의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시켜야 한다.

- 모든 가정의 난방이 충분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5 위의 4개 목표는 동시에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한 한 정부는 시장 틀과 정책수단을 잘 적용하여 목표가 달성되도록 할 것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이 4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신재생 에너지도 탄소배출량을 저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편 청정기술,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여 에너지안보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도 향상시킬 것이다.

1.16 때로는 목표 간에 상충관계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목표 간에 상대적인 '중요도' (weights)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는 없다. 그러나 다음 기준에 따라 접근방식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 상당한 손상을 가져오는 기후변화는 넘어서는 안될 환경측면의 경계선이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는 것으로 진입시킬 필요가 있다.
-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은 경제 전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이다. 충분한 수준의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장기이든 단기이든 항상 만족되어야 한다.
-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에너지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시장 단독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지 못할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정부 정책은 사회 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요금청구서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료공급 구성

1.17 총에너지 또는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연료 원별 구성에 대한 정부의 목표설정이나 쿼타를 제시하지 않는다. 정부가 연료믹스의 구성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않는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좀더 보완된 시장 틀을 만들어내는 것을 선호하며, 이것이 만들어질 경우 투자자, 업계 및 소비자들이 정부의 전반적인 목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건이 되는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18 이러한 접근방식이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정부는 알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발전되고 규모의 경제를 가지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00년 1월 정부에서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에서 2010년까지 전력생산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00년 4월 신재생에너지의무법 (Renewables Obligation)을 도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부과금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조치로 2010년까지 매년 약 10억파운드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지원하게 된다.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19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에서 우선순위는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20년간 과거 어느때보다 훨씬 커다란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상목표의 성취가 가능한 하지만 불확실하다고 본다.

1.20 원자력은 현재 탄소배출이 없는 중요한 발전연료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으로는 탄소배출이 없는 신규 발전설비 옵션으로서 매력 없다. 또한 원자력은 폐기물이라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러나 탄소배출 쿼터를 달성해야 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신규 원전건설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국민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더욱 진전된 국가에너지백서도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1.21 석탄에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면 에너지 다양성의 폭을 넓히는데 석탄화력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청정석탄기술과 탄소포집 및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국내 석탄생산은 기존 탄광이 기술적 경제적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탄광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도입도 고려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매장지가 경제성이 있고 안전기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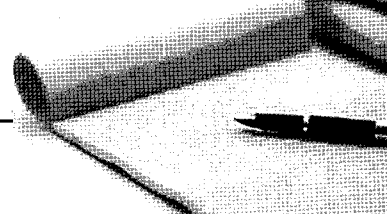
목표달성 방안

1.22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이나 오염으로부터 경제성장과

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1970년 이후 영국의 전반적인 에너지소비는 약 10% 증가했지만, 경제규모는 2배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

1.23 2008-12 기간 이후의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논의가 곧 시작된다. 기존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35Gt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15-25Gt의 탄소배출 저감을 예상한다. 우리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상당한 증가를 통해서 이것이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하고, 영국의 제조업체들이 녹색기술을 개발하는데 앞장서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 세계의 번영에 영국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다.

1.24 미래의 시장 및 정책 틀의 핵심은 탄소배출 거래체계가 될 것이다. 영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거래체계에 착수했다. 2005년부터는 국내의 발전사업자 정유사업자 및 기타 산업분야가 EU 전체차원의 거래체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량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이 계획은 최저의 비용으로 에너지효율 및 청정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차원에서 배출물거래의 기회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EU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EU 방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EU 방식이 분명해지면 세계와 거래허가방식 간의 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1.25 배출물거래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업거나 공공부문 또는 가계부문의 에너지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물품과 빌딩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기 및 가스공급자들이 국내 고객들에게 중공벽(cavity wall) 단열 같은 투자를 장려하도록 에너지효율의무를 마련할 것이다. 빌딩관리법 개정을 2005년으로 앞당겨 빌딩 신축이나 개보수시 에너지효율기준을 높이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럽이 냉장고나 PC와 같은 무역상품의 에너지효율기준을 더욱 높이도록 밀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수송부문에서도 효율개선과 탄소배출저감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금지원이나 계획단계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투자를 더욱 적극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2002년도의 추가자금 3천8백만 파운드 이외에 추가로 6천만 파운드를 증가시킬 것이다. 빌딩 및 조달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공공부문에 하나의 표본을 만들 것이다.

1.26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에너지공급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및 자유화된 EU의 에너지시장에서 올바른 인프라 및 규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긴밀한 국제관계를 구축하여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에서 지역안정과 경제개혁, 시장기능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에너지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조건을 촉진시킬 것이다.

1.27 자유화된 시장에서 선물가격은 미래투자

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신호에 따라 행동하고, 위험과 기회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하여 필요에 맞는 혁신과 계획을 세운다. 현재의 시장신호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벨기에로부터 가스 수입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가스저장 및 신규 LNG 수입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는 시장이란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1.28 셋째, 우리는 국내외 어디서든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촉진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것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에너지의 공급을 통하여 영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경쟁적인 에너지부문은 경제 전분야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중요하다. 정부는 업계가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동시에 비용도 절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고,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보다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정부는 경쟁적인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한 의무를 계속할 것이며, 광범위한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정부는 업계를 도와 저탄소형 경제체제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분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1.29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로 수용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1996년에는 충분한 난방을 위해서 55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해야 했다. 이미 에너지가격 하락과 좋아진 사회보장 혜택으로 그 숫자는 약 3백만으로 줄어들었다.

1.30 빈곤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오래되고 낡아 단열이 잘 안되는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단열이 잘 안되는 가정의 경우 에너지 지출의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연료부족 해소전략에서 201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16-18년까지 영국의 어느누구도 연료부족 문제를 겪어서는 안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조금제도와 에너지효율의무제는 단열향상, 보다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및 실내 외풍 극소화를 통해 이미 가정의 연료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금년 후반기에 이러한 정책 결과를 검토하여 우리의 연료부족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혁신이 필수

1.31 기술혁신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보완하고 저탄소형 경제구조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연구, 개발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신기법을 개발하여 수소 에너지가 핵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신기술과 같은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개발을 권장할 것이다. 신규로 국가에너지 연구센타도 건립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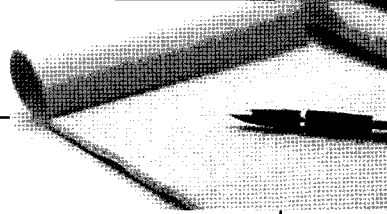
1.32 참여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프로그램, 국제간 협력 및 다자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G8 및 EU 회원국들과 탄소저감이라는 야심찬 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개도국들도 자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

1.33 우리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것은 시장이 개발하고 투자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이 확신과 능력과 장기적인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접근방식은 다음의 핵심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 에너지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방법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20년보다 앞으로 20년간 훨씬 많은 에너지효율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 잘 기획되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에너지시장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목표달성을 위해 시장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특히, 배출물거래가 2005년 이후 우리 에너지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 탄소저감을 위한 기타 조치 뿐만 아니라 거래제를 계속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가정, 생산품 및 수송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 세계적인 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전력망, 미터링 시스템 및 규제체



계로부터 훨씬 많은 신재생에너지 및 소규모 분산형 발전의 출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20년에 걸쳐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 미래의 에너지시스템은 잉글랜드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규 전원과 인프라에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
- 에너지원의 다양성은 공급중단, 급격한 가격 상승, 테러 또는 기타 안정공급을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우리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략함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 공급선 및 공급루트가 필요할 것이다. 유럽 및 세계와의 국제관계가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목표를 달성하는데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 정부는 규제방식의 개선, 시장원리 및 자발적 메카니즘이라는 원칙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분명하고 잘 기획된 경우 이를 강화할 것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
- 신에너지정책을 기획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방식과 일치하도록 정부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장기전략

1.34 정부는 환경목표, 안정적인 공급, 경쟁력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시했다. 에너지는 장기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2050년까지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웠다. 2050년의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중간 시점인 2020년까지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의 전략적 장기비전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가야할 경로로 진입시키기 위해 장기전략과 단기정책도 제시했다. 향후 20여년에 걸쳐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책 세부사항을 모두 정의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험상 정책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정책조치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은 우리의 장기비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도 가져다 주고, 아마 현재로서는 예상도 못할 새로운 도전과제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광범위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정책을 적응시키고 전개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목표 추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고 올바른 경로의 진입 확보 등 에너지정책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1.35 이번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마지막 백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결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과제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다고 본다.

(번역: 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